

“학교 마을총회서 직접 민주주의 체험해요”

금부초교서 학생·금호1동 관계자 7개 의제 투표 ‘안전한 인도’·‘쾌적한 학교주변’ 선정 내년 추진

광주 서구가 마을총회 확산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민주주의 체험의 장을 제공하는 등 직접민주주의의 특화 사업화를 추진한다.

특히, 지난해 금부초등학교에서 1회로 열린 ‘학교 마을총회’를 시작으로 올해 처음으로 금부초교에서 진행했고, 최근 금부초교에서 2회로 개최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서구청은 올해 상반기 2곳을 시작으로 하반기와 2020년 서구 관내 18개 동 전체에서 ‘학교 마을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19일 서구청에 따르면 ‘학교 마을총회’는 학생들이 스스로가 학교에서 마을로 시선을 넓혀 마을문제를 해결하고 마을공

동체를 복원해 주민 누구나 주인이 되는 마을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마련한 총회다.

지난 18일 금호1동 금부초교 강당에서 학생 251명(4학년 80명, 5학년 64명, 6학년 107명)이 모여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소통하고 논의하며 결정하는 마을총회의 장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금호1동을 제외한 17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위원, 동장, 동 주민자치담당 등 60여명도 함께했다.

올해 2회째로 개최한 이날 총회에서는 학급별 자치 회의와 전체 모임을 통해 선정된 학년별 대표 의제 7개에 대해 발표 후 실제 선거와 같이 기표대 등을 설치·투표를 진행했다.



광주 서구 금호 1동 금부초교 대강당에서 열린 ‘학교 마을총회’에 참여한 학생이 발제된 의제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서구청 제공

투표결과 선정된 ‘우리에게 안전한 인도가 필요합니다’와 ‘우리의 소원은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학교 주변입니다’ 의제는 내년도 마을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추진

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어린이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풍금 어린이공원을 만들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밝은 우리 마을을 기

대합니다’, ‘안전한 학교 앞을 위한 신호등이 필요합니다’, ‘쓰레기 없는 깨끗한 마을에서 우리들이 자라납니다’ ‘불법주정차는 이제 안녕’이라는 의제도 기타의 제로 발제됐다.

지난해 마을총회에서 결정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제는 최근 금부초 인근 도시공사2단지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의 프로그램 ‘놀이서 똑똑해지는 보드게임 교실’로 운영되고 있다.

박태순 금호1동 주민자치회 회장은 “이번 마을총회 역시 선거로 마을의 미래를 그려가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마을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지만 그 전에 지역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지역문제를 스스로

발제하게 함으로써 직접민주주의를 체험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다”면서 “앞으로 서구 관내 18개 동 전체에서 학교 마을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찬 기자

지투리 소식

오늘 황풍년 작가 초청 특강

광주 서구가 20일 오후 2시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구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19일 서구청에 따르면 95회째를 맞은 이번 아카데미는 작가가이자 전라도닷컴 편집장인 황풍년 작가를 초청해 ‘삶을 바꾸는 전라도 명장면’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작가가 직접 보고 느낀 전라도의 맛과 멋, 자연, 문화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변화하는 삶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전라도스러움을 지키는 잡지로 알려진 월간지 ‘전라도닷컴’의 편집장이자 대표인 황풍년 작가는 순천 출신으로 고려대 문과대학을 졸업한 뒤 지난 1991년부터 전남일보 기자로 활동한 바 있다.

광주수영대회 안전준비 완료

광주 서구가 ‘2019 FINA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를 끝마쳤다.

19일 서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수영대회 개최와 동시에 많은 외국인 선수·관광객들이 광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위생·감염병 관리에 주안점을 뒀다.

대회 기간이 7-8월임을 감안해 여름종합체육관 일대 고정형 그늘막 설치와 폭염경보 시 살수차를 운행할 예정이다.

또 주요 시가지 및 경기장 주변 녹화사업과 수영대회 대비 종합 청결 대책을 수립, 깨끗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청소대책상황실도 운영해 36개조 100여명의 미화요원들이 주요시설 및 가로변에 대한 집중 정화 활동을 펼치게 된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64억 부과

2019년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달을 맞이해 광주 서구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세 약 64억원을 부과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승합차는 이달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된다. 1월과 3월 자동차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는 이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구의 이번 정기분 과세 차량은 6만 5,545건으로 우편물 또는 전자고지(위택스)로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2과(360-7530)로 문의하면 된다.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설치후 배출량 20%이상 줄어

광주 서구에서 시행 중인 공동주택 RFID(무선인식)기반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19일 서구청에 따르면 RFID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RFID가 부착된 배출카드를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비에 접촉하면 배출원(동·호수)과 무게 등의 정보가 입력돼 버린 양만큼 수수료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수수료는 kg당 63원이며 이 외에 장비유지보수·통신·전기 비용도 사용 세대수에 비례해 부과된다.

서구는 관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64개소 중 127개소에 1,002대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구는 2013년도부터 세대별 종량제 구축을 시작해 공동주택 109개 단지에 RFID 장비 911대를 구축했으며, 설치 전과 비교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20% 이상 감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구는 올해 6월 중에는 6,700만원의 예산으로 동천마을 6단지 등 3개 공동주택에 28대의 장비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도 신청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RFID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RFID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올해 8월 말까지 신청서와 동의서를 청소행정과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청소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찬 기자



광주 서구는 최근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 프로그램인 ‘시인들의 동화나라’를 운영해 참여 어린이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서구청 제공

시각장애인 동화구연 호응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관내 어린이집 대상 진행

광주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이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들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동화구연 프로그램 ‘시인들의 동화나라’를 운영한다.

19일 서구청에 따르면 ‘시인들의 동화나라’는 광주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에

서 동화구연 수업을 수강한 ‘나비체’ 동아리 회원들의 아이들을 위한 재능기부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시각장애인 동화구연을 들려줌으로써 독서문화 활성화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

공해 장애에 대한 공감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서구 어린이집 업무연락망 및 서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전자메일로 선착순 모집하며, 오는 12월 까지 월 1회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http://www.seogu.gwangju.kr/library)에서 확인하거나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350-458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찬 기자

스타벅스와 함께 노인 일자리 창출 ‘눈길’

광주 서구가 스타벅스와 함께 노인 일자리 창출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서구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으로 인해 지역 어르신들은 ‘보행자 통행 안전 시니어 서비스맨’으로 스타벅스 매장에 배치된다. 스타벅스 DT(자동차를 탄 채 구매할 수 있는 곳) 매장에 배치된 8명의 어르신들은 보행자 통행 안전 시니어 서비스맨으로 일한다.

어르신들은 보행자 통행 안전관리자로 스타벅스 주변 통행자의 안전보행, 교통

정리 업무를 하고 있다.

서구는 올해 작년보다 800개 많은 3,900여개의 노인 일자리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인들은 취약노인 가정방문, 안전점검, 지역사회 봉사 활동, 식품제조 판매, 아파트 택배, 경비원 및 요양보호사 등 46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서구는 하반기에 3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모집해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 일자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경로당 인지강화교실 운영

광주 서구가 지역사회로의 접근성이 낮은 치매고위험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인지강화교실을 운영한다.

19일 서구청에 따르면 인지 강화교실은 다양한 인지 강화프로그램 제공으로 치매를 예방해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1회 총 4회기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치매 조기 검진사업을 통해 선별된 인지저하자 또는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고위험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에

방 학습지, 퍼즐, 실버레크레이션, 웃음

치료, 노래교실, 뇌 운동 체조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뇌를 자극하고 뇌기능향상을 촉진해 치매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맞춤형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우울감 감소 및 자기효능감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치매안심센터(350-4767)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매일 연중 일자리 창출 캠페인

서구일자리센터 JobCafe

청춘발산 공작소

모든 혜택이 공짜인 Job cafe에서 내일잡(Job)고 내 꿈을 키워보아요~

직업상담사가 제공하는 청년 맞춤형 구직 정보

노동·법률·심리 등 분야별 전문상담

커피한잔, 독서한권, 웹서핑, 명때리기 등 맘껏 힐링가능

청년 취·창업 공간제공 (회의실·스터디룸)

NCS 직무교육, 면접클리닉, 취업박람회 등 Job Conference

서구일자리센터
청춘발산 공작소
Job cafe

서구 내방로 392(한국자산관리공사 별관 1층)
Tel: 062-369-8061~2 Fax: 062-369-8060

상무대로, 삼익면선, 금호월드, 신세계백화점, 무진대로, 농성역, 화정중점역, 청춘발산 공작소, 교원공제회관, 신세계백화점, 한국자산관리공사